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엿보다 - 뉴욕공공도서관-



엄연숙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과장
lota@seoul.go.kr

책과 도서관에 대한 결핍의 추억

내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것 중요한 것을 세 가지 든다면, 어머니의 사랑과 강원도 영월의 무구한 자연 그리고 책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금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강원도 영월의 자연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면 책은 내가 선택했고, 지금까지 가까이 하면서도 한번도 싫어한 적 없는 내 삶의 친구이다.

내가 남보다 유별나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유별나게 배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강원도 영월 산골에서 자라던 나에게 넓은 세상에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준 것이 책이었다. 작은 오두막 같은 우리 초등학교의 세 분 선생님 중 한 분이 주말마다 영월읍내 도서관에서 손수 골라 빌려와 우리에게 읽도록 했던 책들이 그때 읽었던 책의 대부분이었다. 내 스스로 책을 골라서 읽어 본 것은 서울에 이사한 후 중학생이 되어서 동무들과 하교길에 들른 남산도서관에서가 처음이었다. 기실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러 간 것이었다가 도서관 여기저기 훑어보다가 많은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도서관이 문을 연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래서 남산도서관을 꼭 잘 이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는 서울시의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내가 선택해서 읽는 책으로 나의 독서생활을 시작했다. 그 멀리까지 중학생이 도서관을 찾아야 했을까 만은 -당시 우리 집은 봉천동에 있었다— 우리 집에는 교과서외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었고, 학교 도서관은 명색이 도서관이었지 읽고 싶은 책이 많지 않았다. 도서관과 친해지면서 읽고 싶은 책이 늘어나고 그래서 버스비와 용돈을 모아 300원에 아주 많이 팔린 문고판, 서양 고전번역판과 한국 현대 소설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사서는 아니지만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미국의 도서관 이야기

지금 나는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예술정책 및 책과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책과 도서관에 대하여 결핍의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나는 지금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남다른 감회가 있다. 내가 자라는 동안 가까운 이웃에 도서관이 있던 적이 없었으나 그걸 불만스럽게 여겨본 적은 없었고, 먼 길을 마다않고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읽는 나 자신이 단지 그때의 생각에서도 대견하게 생각했던 적은 많았다. 그러나 그런 결핍을 결핍인지 모르고 살았던 내가 대도시 서울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살피기 위해 방문한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몇몇 도서관을 살펴보고 나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 도서관에 대한 결핍, 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책과 도서관에 대한 그 결핍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결핍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준 도서관들이 뉴욕에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산호세에 있었다. 미국의 현재를 만들고 또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도서관들, 서울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더욱 결핍을 느끼게 했던 미국의 도서관을 엿보았다.

그래서 이 지면은 사서가 들려주는 해외도서관 이야기가 아니라 “사서는 아니지만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미국의 도서관 이야기이다.

미국의 도서관들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안찬수 사무처장과 서울시 도서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도서관 정책을 펴겠다고 뉴욕의 도서관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부디 가서 보고 와서 생각하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정말 한번 보고 와야겠다고 결정했고 급히 출장을 다녀왔다. 나는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동료와 함께 8박 9일에 가까운 여행중 매일 도서관 두서너 개를 방문하면서 보냈다.

뉴욕의 도서관1: 퀸즈 도서관 플러싱(Queens Lib, Flushing)

우리가 처음 방문한 도서관은 퀸즈에 있는 플러싱 도서관이었다. 플러싱 도서관은 비단 책을 읽고 빌리고 하는데 한정된 도서관이 아니라 세계에서 뉴욕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뉴욕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말하자면 미국의 관문 같은 도서관이다. 플러싱은 세계 곳곳에서 뉴욕에 오는 사람들이 최초로 거주하고 거기에서 미국을 습득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3개의 언어로 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어로 된 도서도 있고 한국어로 된 컬렉션이 Korean Window라 명명한 이름표 밑에 있었다.



퀸즈 도서관 : 플러싱의 전경

이 도서관은 또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언어교육, 직업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온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플러싱 도서관은 퀸즈 도서관 중 대표적 도서관이기도 하며, 36만5천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연간 180만명이 방문하고, 하루 평균 80,000권의 도서와 비디오 테이프 등이 대출되고 있다.

이 지역에 처음 오는 외국인,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이 도서관만큼 큰 기여를 하는 시설이 있을까?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오전시간임에도 도서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고, 이 도서관의 부관장인 캐롤 쉐퍼(Carol L. Sheffer)는 이 도서관이 플러싱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였고, 그들이 성취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며, 무엇보다도 플러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에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취업, 여가, 여행 등)를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플러싱 도서관은 운영비의 98%를 중앙정부, 뉴욕시와 퀸즈 보로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서관

운영은 퀸즈 도서관 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 19명은 뉴욕시장이 지명하며 뉴욕시장, 시의회 대표 등은 당연직 위원)의 지도아래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퀸즈 도서관은 62개의 지역 분관(Community Libraries)과 4개의 특수 도서관 분관(플러싱 도서관 외 3개관)이 있고, 2,100만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퀸즈 도서관, 플러싱의 2층 열람실과 한국어 코너

1,400만명이 방문하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22,000여 개의 프로그램에는 약 45만 6천여명의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Magnificent! New York Public Library (인문사회도서관)

퀸즈 도서관에서 지역사회에 밀착한 도서관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애착과 이용에 감명을 받았다면 뉴욕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른 감명을 받았다. 퀸즈 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면, 뉴욕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자체로서 갖는 의미가 유별나다. 도서관의 운영 시스템은 퀸즈가 공공영역이 크다면 뉴욕 공공도서관은 이름과 달리 민간영역이 훨씬 크게 기여하는 도서관이다.

뉴욕 공공도서관(Humanity and Science Library: Fifth Avenue 42nd Street)은 그야말로 5번가에 있다. 신고전주의 건축물로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미국의 인문학 박물관이라고 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인문사회도서관, 도서관 전경

우리는 뉴욕 공공도서관 관장과의 공식회의에 앞서 도서관 투어에 참여하였다. 안내인의 열정적인 설명에 따라 도서관의 각 컬렉션과 자료실들을 충실히 살펴보았다. 투어시간에는 도서관 건물에 대한 안내, 컬렉션에 대한 소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이 안내되었다. 도서관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둥, 장식, 천정화 등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텐베르크의 최초의 성경인쇄본은 뉴욕 공공도서관의 보물이라고 소개했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뉴욕 건축사적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일반열람실 : General Reading Room



3층 일반열람실의 벽면서가

3층의 건물로 이루어진 이 도서관은 몇 개의 컬렉션과 주제자료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3층에 있는 일반연구자료실이었다. 여기는 10만권의 인쇄된 책들이(지하 수장고의 책까지 말하는 것 같다) 있으며 매년 5천권의 책들이 보태지고 있

다고 한다. 기둥조차 없는 커다란 홀에는 책으로 가득 찬 서가로 둘러싸여 있으며 큰 창이 뉴욕의 하늘을 보여주고 있고 천정화는 건물이 갖는 고전적인 면모를 한껏 강조한다. 사람들은 개방형 서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지하수 창고의 책을 사서들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하여 읽을 수 있다.

넓직한 책상도 개방형이며, 개인 랩톱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책을 읽는 사람들조차 건물과 열람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장엄해 보이기조차 했다. 도서관의 어떤 방보다 인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도서관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도서관 전체를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만들었으며, 책에 RFID 칩을 설치하는 등 고전적인 도서관이면서도 첨단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인문학적인 박물관으로서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2층에 있는 The Shoichi Noma 자료실은 아시아 중동 자료관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이 아시아 중동자료관에는 극동, 소아시아, 인도 지방의 언어로 된 자료 440,000권, 1,450종의 신문과 간행물, 6,000롤이 넘는 마이크로필름이 보관되어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살펴보기위하여 기웃거리었지만, 도서관 안내가 빨리 진행되어 카탈로그가 있는 책의 제목만 훑어 보고 지나갔다.

1층에 있는 Dewitt Wallace 간행물실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여기에는 22개의 언어로 된 11,000종 이상의 간행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전세계의 지도란 지도를 다 볼 수 있는(그렇게 믿어지는) 지도자료관 역시 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31,000매의 지도와 16,000매의 지리도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인문학 박물관으로서 의미 있는 컬렉션은 3층에 있는 미술·건축 자료관(Art and Architecture division)과 영미문학자료관(Berg collection of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이다. 미술·건축 자료관은 예술에 대한 갖가지 장르(그림, 시계, 조각, 섬유예술, 도자기 등)에 대한 자료와 건축과 관련된 자료들이 도서자료와 전자 자료로 보관되어 있으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개가식 열람실로 되어 있다. 또한 영미문학자료관에는 낭만주의 시대 및 빅토리아 시



(Dewitt Wallace Periodical, Map Division, Art and Art and Architecture Division)

대의 문학가 등 400명의 작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육필원고가 보관되어 있다. 특히 테니슨, 브라우닝, 데커리 등 영국작가와 워싱턴 어빙, 나다니엘 호오돈, 에머슨, 마크 트웨인 등 미국 작가의 육필원고도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많은 작가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영미 작가들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다. 진실로 인문학 박물관이라 할만 하다.

자료관과는 별도로 마련된 전시실 역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관 전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곰돌이 푸우의 모험, 구텐베르크의 성경책 등은 투어 가이드가 자랑스러워하면서 설명한 자료이다.

도서관 자료를 자원봉사자의 안내로 돌아보았기 때문에 많이는 보았으되, 사실 이용자로서 도서관을 경험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뉴욕에는 이 도서관에서 문학작품을 구상하고, 논문을 쓰고 또 즐거이 책을 읽으면서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가졌거나 하니 부럽고,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도서관 몇 개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뉴욕 공공도서관장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방대한 도서관 시스템의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부럽다는 생각만 더할 뿐이었다.

진실로 전문도서관: SIBL과 NYPL for the Performing Arts

인문사회도서관이 웅장하고 압도하는 도서관이었다면, 뉴욕의 다른 연구 도서관은 기능과 실용에 아주 중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연구도서관으로서의 과학산업도서관(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 SIBL)과 공연예술도서관(NYPL for the Performing Art in Lincoln Centre)은 서울시의 도서관정책을 고민하는 나에게서는 한줄기 빛과도 같았다. 인문사회도서관이 웅장하고 규모가 있다면, 과학산업도서관과 공연예술도서관은 도서관의 이용자들- 예술가, 창업가, 실업자(?)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정보를 주는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우리 서울시가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더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관하고 시민들이 넓게 이용하며 그들의 창의와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공연예술도서관에는 안무를 위해 메모했던 작은 비망록에서부터 공연과 관련된 모든 것들- 포스터, 기획서, 메모, 영상기록, 인터뷰 자료, 그리고 공연예술을 뒷받침하는 이론도서, 음악에 대한 기록, 피아노 악보, 이 모든 것이 있다. 센트럴 파크 왼편, 링컨센터 플라자에 있는 공연문화도서관은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에게나 공연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또는 문화시설을 경영하는 사람들,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도서관이다. 물론 일반인에게도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공연예술의 전모를 보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 오면 되는 그야말로 공연문화예술의 모든 자료들이 있는 곳이다. 공간도 예술적으로 꾸며졌다. 서



뉴욕 공연예술도서관: 시계방향으로
예술경영자료서가, 2층 안내데스크
(댄스, 드라마, 예술경영, 자료들이 2
층에 있음), 1층 안내데스크, 3층 레
코딩 컬렉션의 유리벽, 2층 열람실,
외관

가 하나하나, 천정의 등 배치, 복도와 계단의 디자인, 포스터 등 모든 것이 예술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도서관은 4층으로 되어 있으며, 2층의 열람실은 예술경영자료, 그 외 대출되는 음악 관련자료, 극장관련자료, 영화 관련 자료, 오케스트라 관련 자료, 비디오 자료들이 있고, 3층에는 대출되지 않는 자료들이 주로 있다. 2층에도 대출되지 않고 참고만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며, 장르별로, 자료가 분류되어 있다. 특히 3층의 음성녹음 자료실(Rodgers and Hammerstein Archives of Recorded Sound)은 출입시 가방이나 덧옷을 맡겨두고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3층 체크 룸에서 옷과 가방을 맡겨놓고 들어갔지만, 정작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몰라서 열람실만 둘러보고 멋쩍어 하면서 나왔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단순 방문객에게는 부러워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공연예술도서관은 작곡가들의 육필원고나 많은 연극단체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담을 공간조차 없는 서울의 공연예술계의 기록 작업과 그 자료관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또 한번 결핍을 뼈저리게 한다.

SIBL은 또 어떤가! SIBL에서는 과학 일반, 경영일반, 컴퓨터, 광고, 보험, 마케팅, 부동산 등 산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서적들이 망라되어 있다. 과학과 비즈니스에 대한 창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이러한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고, 일반시민이나 기업의 직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이 도서관은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위한 사람이나 취업을 위한 사람이나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방대한 자연과학과 비즈니스 관련 자료들, 누구에게나 이용이 열려있는 민주적인 이용환경, 이곳에서 미국의 산업은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고 있으며,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아주 작은 것-이력서나 구직정보-에서부터 거대한 사업계획까지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자료를 얻고, 심지어는 사업을 경영할 수도 있다.

SIBL은 2층(1층과 지하층)으로 되어 있다. 1층은 기부자의 이름을 따 Lewis B. & Dorothy Cullman 열람실·대출실로 1층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지하의 여러 공간 역시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McGraw 정보센터, Richard B. Solomon 연구자료실, Elizabeth and Felix Rohatyn 전자정보센터, Harrison S. Kravis 전자교육센터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도서관 투어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 둘 뿐이어서 안내인은 아주 상세하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각 방들과 강의실, SIBL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 등을 안내해 주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강당의 의자가 아주 좋은 의자라고 자랑스럽게 안내한 것인데, 세심한 것까지 이용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SIBL에서는 이용되는 컴퓨터도 다른 도서관과 달리 더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로 구비되어 있어서 미국의 산업경제를 이끌어 가는 젊은이들이 불편함 없이 자료를 찾고 이용하고, 여기에서 미래를 꿈꾸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이 간다.



(SIBL, 시계방향으로 메인홀(Healy Hall, 일층 대출대, 지하 McGraw Information centre, 지하 컴퓨터 교육실, 회의실, Healy Hall 의 USB Business Information Wall)

우리 서울의 도서관 환경은 어떤가? 산업일반,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도서관도 없지만, 취업준비를 위한 사람, 창업을 위한 사람을 위해 그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던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은 있지만, 그리고 두꺼운 고시용 교재를 들고 눈이 킁킁해지도록 을 빼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고시원은 있으나 이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모든 자료를 관리해주는 도서관은 없지 않은가? 심지어는 취업을 위한 사람, 진학을 위하여 하루 종일 도서관에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 도서관담당자들은 조금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용자들은 절박하게 취업을 생각하고 진학을 소망한다. 이들을 위해 보다 적합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SIBL 도서관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젊은 시민을 위한 도서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확실한 답을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뉴욕의 연구 도서관 세 곳을 돌아보았다. 슌버그도서관(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은 흑인 거주지역인 할렘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에 방문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크게 후회 된다. 언젠가 뉴욕에 다시 들를 일이 있다면 꼭 방문해 보아야겠다.

이번 미국출장에서 돌아본 도서관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산호세의 도서관 등이었다. 소개하지 않은 두 곳은 뉴욕의 도서관과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지역의 특성만큼이나 큰 차이도 있다. 어찌되었거나 뉴욕 도서관 시스템을 돌아보면서 부러운 마음과 함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느낀 책에 대한 결핍의 추억, 또 지금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도서관 환경을 절실히 느꼈으며, 애써 노력하여 그 부족을 메워 가야 할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는 도서관 탐방이었다.